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김학배 안젤로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사 무 장 : 주정희 마리아 육오공-육칠팔-일이삼오

2026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백)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26년 4월 12일(제2181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화(5pm~8pm),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대건관 1호, 3호	
한 국 학 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 심 단 체	레지오마리애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 시 간		

미 사	주 일 미 사	오전 8시 / 11시
	평 일 미 사	수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전 11시
성 사	고 해 성 사	미사 30분 전
	병 자 성 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 배 성 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제1독서 사도행전 2,42-47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베드로 1서 1,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 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성가]									
8시	입당	130	봉헌	212	성체	174	파견	131
11시	입당	128	봉헌	220	성체	165, 188	파견	76

부활 제2주일	4월 12일(주일)		4월 14일(화)	4월 15일(수)	4월 16일(목)	4월 17일(금)	4월 18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란 아네스	황혜정 데레사					안나/요아킴
독 서	강신호 요한 차아름 루시아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골롬바					안나/요아킴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정인경 가브리엘라					장희숙 루시아
묵주기도		황혜정 데레사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교회는 오늘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기리는 날로 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자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미사안내

김학배 안젤로 신부님 부임하시기 전까지

- 주일 미사: 오전 8시, 11시
  집전 사제: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 평일 미사: 수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집전 사제: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
- 화/목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부활시기 신앙의 신비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부활 삼종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매일미사 33쪽 참조)

■4월 성경 통독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3,1-4,13

■ 4월 18 토요일 미사전례 : 안나/요아킴

*안나/요아킴 4월 정기모임은 4/25(토)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 휴가 관계로 4/15(수), 4/22(수) 미사는 없습니다.

■ 연도 안내

- 4월 19일(일) 8/ 11시 미사 후에 김학철 요한 형제님의 어머니 故 김아례 카타리나 자매님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 4월 영성 특강

- 일시: 오늘(4/12) 오후 12시 40분
- 장소: 성당(독서대 앞)
- 주제: 성서, 부활의 빛 속에서 읽기

■북가주청년회(Unitas) 피정 및 영어미사

- 일시: 4/18(토) 오전 11:00 - 오후 8:00
- 장소: 본당(친교실 및 대건관)

■ 향심기도 일일 피정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과 마주보며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귀한 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5/4(월), 9 AM – 7 PM, San Damiano Retreat
-강사: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
-마감 및 참가비: 4/19((일), $110(점심 & 저녁 표함)
-문의 : 황혜정 데레사(510-384-0895)

■RICE BOWL은 성당입구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회의

- 샌리엔드로; 4월 12일 오후 2:00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 4월 12일 오후 2:00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4월 19일 오후 12:30 교육관 106호
- 콘트라코스타: 4월 19일 오후 12:30 교육관 107호
- 알라메다: 4월 19일 오후 5:30 B.B Bowl

■ 밥나눔 안내

- 메뉴:떡만두국(염파트리샤), 고등어 조림(차리디아), 돼지갈비 김치찜(이베로니카), 떡볶이&군만두(이아네스), 소고기 미역국(이요안나), 마파두부(이마트로나)
- 다음번 밥나눔:4월 19일(김카타리나 자매님 연도)
  4월 26일(김영숙 안나 자매님 팔순)
- 문의 : 송성숙 아네스 자매님 (오일공-삼칠오- 오일사칠)

■ 공동체 기도 지향

- 다음 주 일요일(4/19일)까지 공동체기도 지향은 헤이워드 구역 김학철 요한 형제님의 어머니 故 김아레 카타리나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 바치겠습니다.

+ 주모경
+ 주님 김 카타리나에게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 김 카타리나의 영혼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 기도와 미사를 위한 성당 이용 안내

미사 전 기도와 고해성사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또한 미사 중 분심을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친교실에서 성당으로 통하는 문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성당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당 입구 홀에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당은 울림이 큰 구조로, 작은 소리도 내부에 크게 전달됩니다.
3. 미사 전에는 휴대전화가 반드시 묵음 상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4. 장궤를 내릴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신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성모님 상 화단은 레지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초를 제거하거나 심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팔일오)

■ 본당 청소(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문의 : 이덕용 안드레아(오일공-칠칠삼-사삼팔삼)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특집] 왜 '자비'는 부활 다음에 오나

주님 부활 대축일 다음 주일인 부활 제2주일을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낸다. 이 명칭은 2000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를 시성하면서 공식 선포했고, 같은 해 교황청 경신성사부 교령을 통해 전례력과 미사 경본 안에 명문화됐다.

그러나 이 주일이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 된 데는 단순히 전례력에 기념일 하나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파우스티나의 신심과 부활 시기의 전례 그리고 이날 복음에 대한 교회의 이해가 서로 맞물려 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의 기원은 20세기 초 폴란드 파우스티나 수녀의 영적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일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째 주일이 자비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다.(299항) 이 요청은 49항과 570항 등에서도 반복된다.

그리고 699항에는 이 축일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예수님은 이 자비의 축일을 "모든 영혼, 특히 가련한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와 피신처"라고 부르시며, 그날 고해와 영성체에 오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약속하신다.** 부활 제2주일이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자리 잡게 된 직접적인 영적·신심적 근거가 바로 이 기록들이다.

폴란드 크라쿠프대교구에서는 1985년 이 축일을 처음으로 전례력에 공식적으로 포함했고, 이후 폴란드 여러 교구로 확산됐다. 크라쿠프대교구장 시절부터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복·시성 절차에 깊이 관여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서임 뒤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 등을 통해 하느님 자비를 교회의 핵심 주제로 제시해 왔다.

전례적인 면을 볼 때 교회는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부활 제2주일까지 여덟 날을 하나의 큰 축일처럼 지내는 부활 팔일 축제로 거행한다. 그 마지막 날인 부활 제2주일은 축제의 절정을 이루며 주님 부활의 의미와 신비를 고양한다.

이날 미사에서는 전례력 가·나·다해 공통으로 요한복음 20장 19~31절이 봉독되는데, 여기에는 두 장면이 핵심으로 담겨 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안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또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토마스를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처 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 주시며 의심 속의 제자를 믿음으로 이끄신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전대사 교령 등은 이 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죄의 용서 사명을 맡기신 장면을 특별히 상기시킨다.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동시에, 상처 난 몸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안에서 죄의 용서와 관계 회복이 열리는 사건으로 교회 안에서 묵상 돼 왔다.**

부활 팔일 축제의 마지막 날은 바로 그 자비가 교회의 사명으로 선포되는 날인 셈이다. 그래서 경신성사부 교령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부활 제2주일을 이러한 은총의 선물을 특별한 신심으로 기억하는 날로 정하고, 이 주일에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밝힌다.



1934년 카지미에롭스키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의뢰에 따라 그린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 현재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하느님 자비 성당에 자리하고 있다.

"네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1931년 2월 22일 폴란드 플로츠크의 자비의 성모 수녀회 파우스티나 수녀가 만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성화로 그리도록 지시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은 한 손을 강복하듯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가슴께에 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흰빛과 붉은빛, 두 개의 큰 빛줄기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가 '자비로우신 예수님 성화'라고 부르는 성화의 모습이다.

이 성화에서 가장 큰 특징이 두 빛줄기다. 이 빛줄기들은 각각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의미한다.<중략>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0년 열린 파우스티나 수녀 시성식 강론에서 **"피는 골고타의 희생과 성체성사의 신비를 떠올리게 하고, 물은 요한복음의 풍부한 상징에 따라 세례와 성령의 선물을 생각하게 한다"며 "이 상처 입은 성심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 자비의 빛은 계속해서 세상 위에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수님은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명하면서, 그 그림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을 넣으라고 했다. 이는 자비에 대한 우리의 실천이 의탁(신뢰)임을, 그리고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역시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가톨릭 신문 발췌>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주일학교	총
미사참례인원	35	249		284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주일학교	8시	교중미사							
[교무금] 박호영(4), 천종욱(4), 이명란(4), 이명국(4), 이영기(1-2), 김문환(3), 전문자(4), 유윤미(4), 문영민(3-4), 조우송(4), 조신원(4), 조용숙(4), 김종성(1-4), 박부기(4-6), 장정숙(4-6)								이명란		이명란 조우송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4/12(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4/12(일)	생	송성숙 아네스	이로사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김광석 베드로	가족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김영순 젬마	이에스터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이필형 필립	이에스터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김학철 요한	이선희 막달레나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생	이인국 Justin	이선희 막달레나
	연	김재성 제이슨	김지호 알렉쓰		생	이인평 요셉	이선희 막달레나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RON LWIN				
	연	박정희 율리엣다	김원덕 시몬				
	연	천성배	천다니엘				
	연	김청수 바오로	김용찬 프란치스코				
	연	유낙양 베로니카	가족				
	연	윤 Dana 요한	가족				
	연	장민우 베난시오	김문환 베드로				
	연	장민우 베난시오	이로사				
	연	박영실 데레사	이정연 골롬바				
	연	박영자 글라라	이정연 골롬바				
	연	박의동 막달레나	전데레사				
	연	김귀연 안나	이 마리아미카엘라				
	연	김원식 도마	이선희 막달레나				
	연	이무환 요한	이선희 막달레나				
	연	정성암 다니엘	이선희 막달레나				
	연	정케븐 미카엘	이선희 막달레나				
	연	김아례 카타리나	가족	4/18(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김아례 카타리나	염 파트리샤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김아례 카타리나	유윤미 리디아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김아례 카타리나	김문환 베드로		연	장민우 베난시오	송아네스
	연	김아례 카타리나	대건회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4/12(일)	생	권영섭 요셉	이 에스터		연	이숙강 엘리사벳	가족
	생	권영섭 요셉	김 엘리사벳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나
	생	권주선 다니엘	김 엘리사벳		연	김아례 카타리나	이명란 아네스
	생	김베드로/안나 가정	송아네스		연	김아례 카타리나	조프란치스코
	생	권클라라/바실리오 가정	송아네스		생	이연 베드로	이욱경 글라라
	생	전윤자 데레사	송아네스		생	이영 크리스티나	이욱경 글라라
	생	전쟁중에 있는 군인들	송아네스		생	백 카렌	이욱경 글라라
	생	도미니크 김	김원조도미니크		생	양 웨인	이욱경 글라라
	생	박호영 헬레나	송아네스		생	이선희 막달레나	염파트리샤
	생	박호영 헬레나	이정연 골롬바				
	생	편찮으신 모든 분들	김영선 안젤라				

Samuel Kim
건강 보험 전문 메디케어/메디칼
처방약 보조. ACA
무료상담 (510)418-0243
samkim515@gmail.com
CA Lic. #4474816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

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

폴김 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
DRE #01851957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